

2/25/24

설교 제목: 성도가 형제들에게 마땅히 베풀어야 할 사랑과 용서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빌레몬서

- (몬 1:1)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 (몬 1:2) 자매 압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 된 아킵보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 (몬 1:3)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 (몬 1:4)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 (몬 1:5)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 (몬 1:6)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절관주** 빌 1:9
- (몬 1:7)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 (몬 1:8)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 (몬 1:9) 도리어 사랑으로써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 (몬 1:10)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 (몬 1:11)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하므로
- (몬 1:12) 네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심복이라
- (몬 1:13)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 (몬 1:14)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 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 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절관주** 고후 9:7, 벰전 5:2
- (몬 1:15)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절관주** 창 45:5
- (몬 1:16) 이 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 받는 형제로 돌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게라
- (몬 1:17)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 (몬 1:18)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빛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 (몬 1:19)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값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빛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절관주** 고전 16:21, 갈 6:11
- (몬 1:20)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 (몬 1:21)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하므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절관주** 고후 2:3, 고후 7:16
- (몬 1:22)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속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절관주** 빌 1:25, 고후 1:11
- (몬 1:23)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 (몬 1:24)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 (몬 1:2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본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지도자인 빌레몬에게 써서 보낸 짧은 서신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으로 골로새서와 거의 같은 시기에 쓴 것입니다.

편지에는 본래 빌레몬 집의 종이었는데 문제를 일으키고 도망쳐 나온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며 그를 용서하고 사면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세 가지를 청하는데

첫째, 오네시모의 죄를 용서할 것

둘째,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아들여 주 안에서 형제가 되었으니 그를 더 이상 노예로 대하지 말고 복음 전파의 동역자로 대해 줄 것

셋째, 오네시모가 감옥에 있는 자신을 곁에서 돕도록 법적인 노예 신분을 풀고 돌려보내 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난 것은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재정난을 겪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 교회들이 모아준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갔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 우여곡절을 겪은 후 약 2년만에 로마로

호송되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감옥에서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를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고 오네시모는 복음을 받아들여 믿음의 형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이들고 병들어 감옥에 있는 바울을 수발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오네시모를 자기 곁에 두고 싶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단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 빌레몬의 승인을 받은 후 다시 데려올 작정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인사를 합니다.

(몬 1:1)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몬 1:2) 자매 압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 된 아킵보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몬 1:3)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들에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등으로 소개하는데 반해 여기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 것은 빌레몬에게 대한 은근한 압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일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유나 권리를 포기했다는 사실을 빌레몬에게 상기시키고 빌레몬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오네시모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게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부각하여 자신이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입장임을 난지시 밝힌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디모데와 함께 빌레몬, 압비아, 아킵보와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에 보낸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과 함께 형제 디모데 이름을 송신자로 넣어 언급한 것으로 보아 디모데와 빌레몬은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함께 에베소 두란노에서 3년 동안 거주하며 사역을 했었습니다.

아마도 이때 두사람이 만나 친분을 쌓지 않았나 추측해 봅니다.

압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이고 아킵보는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빌레몬은 자신의 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 가정과 그 집에 있는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주 예수와 성도에 대해 사랑과 믿음이 있다고 들었다고 하며 감사의 말을 합니다.

(몬 1:4)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몬 1:5)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몬 1:6)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몬 1:7)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와 오네시모로부터 빌레몬에 대해 듣고 있었습니다.

편지의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자신의 요청을 도저히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논리적이고 호소력 있게 자신이 오네시모를 보내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몬 1:8)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몬 1:9) 도리어 사랑으로써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몬 1:10)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몬 1:11)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하므로

(몬 1:12) 네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심복이라

(몬 1:13)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몬 1:14)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 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 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가리켜 '옥중에서 복음으로 낳은 아들' 이라고 합니다.

오네시모 뿐만 아니라 빌레몬도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둘 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여 새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복음 때문에 옥에 갇혀 있어 누군가 자신을 도와 중 사람이 필요한데 오네시모가 그 일을 맡아 해 줄 책임자이니 빌레몬이 직접 로마에 와서 자신을 돕는 대신 그의 종 오네시모를 돌려보내 자신을 곁에서 돕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사도로서 빌레몬에게 이것을 명해도 무리가 없겠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간구한다고 합니다.

빌레몬이 자의로 그렇게 해 주면 이 선한 일이 자원하여 베푸 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의 죄를 용서하고 사면하여 그를 다시 바울에게 돌려보내도록 하기 위해 완벽한 논리를 전개합니다.

(몬 1:15)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몬 1:16) 이 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 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게라

(몬 1:17)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사도 바울은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리"라고 합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도망쳐 나온 것은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지만 그 일로 인해 그가 사도 바울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주 안에서 한 형제요 동역자가 되었으니 오네시모의 도망이 잠시에 불과한 반면 주 안에서 형제는 영원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일깨워 줌으로써 오네시모가 지은 죄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네시모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더하여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달아난 중 취급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맞으라고 하며 자신이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육신과 주 안에서 모두 상관있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훨씬 더 사랑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과 오네시모는 주 안에서만 관계가 있지만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인간적인 관계에서 주인과 종이요 영적으로는 주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네시모를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동료로 영접하라고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입힌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언급합니다.

(몬 1:18)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몬 1:19)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의 빚을 책임지겠다고 한 후 갑자기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진 빚에 대해 언급합니다.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진 빚이 있다는 있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진 빚이란 복음의 빚을 말하는 것입니다.

편지의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주 안에서 낳은 아들이요 영적 아버지인 자신의 청에 순종함으로 기쁨이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몬 1:20)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몬 1:21)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하므로 네가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자신의 말에 순종할 것을 확신했을 뿐만 아니라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안다고 합니다.

빌레몬이 바울이 청한 것들 외에 복음 사역 등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곧 석방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골로새 성도들의 기도를 요청합니다.

(몬 1:22)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사도 바울은 끝인사로 편지를 마무리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와 함께 있는 동역자들 특별히 자신과 함께 감옥에 갇혀있는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도 같이 문안한다고 합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입니다.

(몬 1:23)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몬 1:24)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빌레몬과 그의 가족이 섬기는 교회를 축복하며 편지를 마무리 합니다.

(몬 1:2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서는 한 장으로 구성된 아주 짧은 서신이지만 우리에게 큰 교훈과 도전을 줍니다.

성도는 신분에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므로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사실을 기억하고 비록 형제가 자신에게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해 줄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것들에 연연하기 보다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복음 전도에 전력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쿨하게 사는 것이 어디 쉽습니까?

특별히 사랑하고 용서해야 하는 형제가 자신에게 죄를 지은 사람일 경우 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라도 우리는 본서의 교훈을 생각하며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주님께 사랑의 빛을 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대신 치뤄서 우리가 탕감받은 죄값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생명을 값으로 치자면 얼마가 될까요?

자신의 그 큰 빛은 탕감받고 형제가 자신에게 진 빛은 작은 것까지 모두 헤아려 받으려 한다면 주님이 분노하실 것입니다.

행하기 쉽지 않은 것을 주님 말씀 때문에 행하며 사는 일은 성도인 우리를 환희에 젖게 합니다.

내가 행한 그일로 말미암아 우선은 내 자신이 기쁘고 행복하며 내 주변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게 됩니다.

우리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삽시다.